

히로시마 노트 문학 평론

- 히로시마인에게서 발견한 오에의 반전과 평화사상 -

2016102626 일본어학과

최 유 빈

1. 『히로시마 노트』 과 오에 겐자부로 : 전후민주주의가 말하는 반핵과 반전

최근 미군 무인정찰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보복’ 공격을 준비했다 실행 10분 전 철회조치를 내리는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가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함께 이란은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였고, 북한의 ‘미래핵 포기’ 협상 분수령 역시 아직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핵을 둘러싼 세계의 세력다툼은 현재진행형이며, 핵무기는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경악(驚愕)의 무기이자 세계평화유지 명목의 방어무기라는 역설적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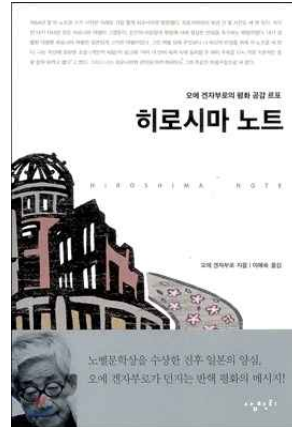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종전’을 위한 수단으로 핵이 투하되고 세계는 유일 피폭국으로서의 일본을 근 60년간 마주해왔다. ‘압력수단’의 용도였을 ‘원폭’은 그 무색의 숨결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공기, 건축물, 땅과 흙, 그리고 사람들 그 자체에 불어넣었고, ‘피폭’이라는 침묵 속에 침잠된 이 두 땅은 기나긴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는 ‘피부가 검게 변색되고 자신의 눈이 점차 보이지 않게 되고 얼굴이 두부와 한천을 뒤섞은 듯이 부어올라 사그라들어가는¹⁾’ 히로시마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원폭 후유증과 싸우고 있는 그들이 주장해 온 ‘핵무기 전면폐지 호소’는 왜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60년이 지난 지금도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남용하리라 판단되는’ 일부 무력국들에 한해서만 강력한 제제가 가해지고 있다. 핵무기는 편협한 방식으로 그 소유의 위험함을 재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폭력이며 피폭의 피해는 기형아 출산 등 다음 세대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폐허가 된 땅에서 자라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야 할 것 핀 식물의 세포가 기형적으로 뒤틀린 모양을 보고도, 왜 세계는 핵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

일본에는 이러한 세계적 침묵을 뚫고 피폭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나아가 다른 피해국가의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핵무기 전면폐지’를 전후부터 줄곧 주창해온 목소리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히로시마 노트』의 저자 오에 겐자부로는 현대 일본인의 대표적 양심이자 행동하는 지성인의 표상으로서 히로시마를 취재 여행하며 만난 히로시마인들의 이야기를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글에 담았다. 오에의 글 속에는 자신도 피폭을 당했음에도 밀려들어오는 몇 십만의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이야기, 몸에 생긴 흉한 켈로이드로 인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 아이를 낳고 죽은 산모의 이야기와 일본인이 아닌 마이너리티로서의 조선인의

1) 오에 겐자부로, 김춘미(역), 『히로시마 노트』, 고려원, 1995, p.286.

시각 역시 다뤄지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1935~)와 그의 작품 『히로시마 노트』(1965)

이에 오에가 그의 반핵, 비핵화 색채를 담은 르포 『히로시마 노트』 속 고유한 로컬리티성을 띠게 된 ‘히로시마인’의 의미, 원폭 문제에 있어 일본과 마이너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오에의 논의는 현재 일본 정계가 고수하는 우익적 성향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가 제시한 ‘히로시마인’의 표상이 패전 후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와 자국인의 시선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에의 이런 사고가 ‘피폭자’ 속 ‘피폭자 비일본인’이라는 더욱 세부적인 마이너리티와 연결될 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후민주주의자로서의 오에가 주창하는 폭력과 평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2. 『히로시마 노트』 속 ‘히로시마인 : 숙명을 짊어지고 태동한 반전(反戰)과 평화의 표상

“여기에도 또 히로시마라고 하는 <숙명의 땅>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히로시마에서 가장 끔찍한 체험을 겪고 살아남고,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으로서 가장 성실한 삶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이들 정말로 히로시마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본질적인 깊이에서는 삼의 쌍둥이처럼 확고히 맺어져 있는 것이다.”²⁾

오에는 1945년 8월 6일에 벌어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을 통해 ‘숙명의 땅’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은 히로시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류 미증유의 사건을 겪으며 히로시마의 사람들은 ‘피폭’의 아픔을 짊어진 유일피폭국가 국민의 표상이 되었다. 전후 일본의 패전과 함께 히로시마인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가져다준 끔찍한 피폭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멀쩡하던 장사가 눈이 멀고, 앓은뱅이가 되다 이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막 태어난 아이가 기형아로 사산하는 날것의 체험 속에서 히로시마인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단결의식을 갖게 된다.

“통틀어 원폭 후유증이라고 비인간적, 물개성적으로 일괄 처리되지 않게, 한 인간의 삶을 산 사람으로서 원폭의 손에서 벗어나 정말 그다운 죽음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싶다.”³⁾

2) 오에 겐자부로, 앞의 책, p.111.

“히로시마 사람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추악한 가스실로 화함으로써, 그곳을 그렇게 만든 원폭 투하자들에게 그들이 도대체 어떤 공포에 찬 악을 행했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피폭 후 곧장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⁴⁾

하지만 히로시마인들은 패전의 절망감과 피폭의 두려움 속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라는 거칠고 폭력적인 틀 속에 뭉뚱그려지기를 거부했으며, 파괴된 자신들의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정체 모를’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햇볕을 쬐기 힘들 지경의 환자들 또한 평화공원에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냈다. 오에의 르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히로시마인으로서 한데 묶여 그 아픔이 납작하게 해석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가공할 원자폭탄의 위력이 낳은 ‘비참한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람을 담담히 토로한다. 히로시마인들의 몸과 마음, 그들의 땅과 공기 속 모든 터전에 사무친 아픔의 흔적들은 그 상처에 스민 고름을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스스로 반전의식과 평화의 표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마이너리티 속의 마이너리티 : 피폭된 ‘非일본인’을 관망하는 피폭된 일본인

그렇다면 마이너리티 속의 세부적인 마이너리티인 ‘피폭된 비일본인’, 즉 전전 식민지 국민이었던 조선인을 묘사하는 데 오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동시대 이부세 마사지 역시 히로시마 원폭투하를 소재로 『검은 비』(1966)를 저술했지만, 이부세의 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폭문학에서는 ‘일본인’ 소시민의 끔찍한 체험을 주 소재로 다루며 조선인, 오키나와인 등의 마이너리티 담론에 있어서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해방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약 2만 명의 조선인이 함께 피폭의 아픔을 겪었다고 ‘추정’된다. 정확한 추산치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분명 일제강점기를 겪은 만큼 상당한 비일본인이 일본 본토 내에 잔류했을 터인데 일본인만의 고통을 다루는 것은 비판적 여지가 있다. 더불어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의 입장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상을 침범당한’ 일본인의 모습만 다룬다는 것 역시 매우 편협한 접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히로시마 노트』는 당대의 이러한 모순적, 편집적 묘사보다 진보되어 있다.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젠 미국도 일본도 원망하지 않아요. 비록 전쟁으로 불구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한국인인 내가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일본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는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라는 문제는 제쳐 두고, 자식을 다섯이나 잃은 어미로서 원수폭 금지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사문 인용)”⁵⁾

오에의 르포 속에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노부인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3) 오에 겐자부로, 앞의 책, pp.21-22.

4) 오에 겐자부로, 앞의 책, p.185.

5) 오에 겐자부로, 앞의 책, p.88.

담담히 밝히는 기사문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노부인의 발언은 오랫동안 식민지 국민이었던 현실을 반영하듯 ‘일본인에게 신세를 져서’ 미안하다는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물론 조선을 강점하고 세계구급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만행을 고려할 때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오에가 진상을 파악하려 이 노부인을 찾았을 때 그 거리는 이미 텅 비었다는 서술을 고려하면 그 기사문 자체가 거짓이거나, 같은 비정한 현실을 헤쳐나감에도 일제강점의 영향이 여전히 조선인의 사고에 뿌리박혀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일본신문의 기사임을 고려할 때 패전 직후 일본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위조기사로써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물론 아직 한계는 분명하지만, 주목할 것은 진상을 떠나 오에가 이런 마이너리티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작품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오에가 동시대 침묵하던 일본 문인들과는 명백히 다른 방향을 지향함을 드러낸다. 이후에도 그는 오키나와를 주제로 『오키나와 노트』(1970)을 출간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보이는 데 힘을 보태려 노력하였다.

4. 히로시마사과 반전, 세계평화를 향해

우리는 오에의 르포르타주 『히로시마 노트』속에서 히로시마인의 실제적인 체험과 괴로움을 딛고 이를 평화로 승화해내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오에는 매우 세밀한 시선으로 국가 단위 폭력에 고통 받는 이들의 현실을 붙잡아낸다. 그는 일본의 실상을 보고서도 여전히 원자폭탄을 두고 다투는 세계에 분명한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모든 폭력에 대한 오에의 비판과 저항은 그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동시에 ‘이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원폭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단순히 소시민적인 일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관조하며, 세계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흐린다는 지적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오에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시선, 피폭당한 히로시마의 미화되지 않은 진실된 실상, 히로시마인의 삶 조망에 대한 태도는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음에 이견이 없다.

세계는 오에에게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외침에 화답했다. 하지만 2019년 현대를 보아도 아직 전 세계 비핵화와 화합의 길은 거리가 먼 것 같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국가 단위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의 우리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반전사상, 평화사상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기회를 주는 평화르포라는 데서 5점 중 5점을 주고 싶다.

히로시마라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 일본의 피폭지 중 하나이자, 매년 8월 평화 기념 공원에서 원폭 사망자 위령식과 평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을 오에의 글과 함께 더듬어 보았다. 오늘날 히로시마인들의 아픔과 반전을 향한 상징적 목소리는 세계에 울려 퍼지며 평화의 굳은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